

행복한 금요 편지

그리운 당신에게

박종우
전 여의도고등학교 교장¹⁾


그리운 당신에게,

멀리 지구 반대편 이국땅, 혼자서 12일째 여행을 즐기면서도 겹겹이 쌓인 가정사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당신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이 글을 마음속으로나마 저 멀리 허공에 띄워 당신에게 전하렵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호수와 폭포로 둘러 쌓여있는 웅장한 풍광을 구경하고 감탄하면서 가정사에 매몰되어 홀로 집안에서 수고하고 있을 당신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당신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무엇인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를 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순간도 그저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슴으로만 전할 뿐입니다. 멀고 먼 이국땅에서 당신에게 여행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근황을 전하는 순간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련함에 가슴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 당신이 멀리서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난 여행지에서도 참으로 행복하답니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박종우 전 대청중, 여의도고 교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검찰청형사조정위원, 서울샤프론대학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평생 남보다 많은 자식들(4명) 낳아 반듯하게 기르느라 힘겨운 삶을 어깨에 동여매고 굳세게 살아온 당신이기에, 이제는 편히 좀 쉬만한 때인데 외손주들까지 당신의 손에 맡겨줘 건수하느라 그 무거운 짐을 어찌 가늠할 수가 있겠지요?

안쓰럽게도 한결같이 오직 가사와 가족을 돌보느라 힘겹게 일상을 꾸려가는 모습이 지금도 늘 눈에 선하답니다.

정작 필요한 건 당신의 양 어깨위에 놓인 무거운 짐 조금이라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도리인줄 왜 모르겠소만, 그 짐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무겁게 떠넘기는 일상들이 더 마음이 아플 따름이래요.

나도 매사에 당신과 함께 걸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이다. 그러나 마음 뿐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질책해 봅니다.

당신도 나의 후회와 미안함에 조금이라도 응답해 준다면 좋으련만, 그러나 멀리서 들리는 당신의 무언의 불평과 자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저 겨우내 얼었던 당신의 응어리진 마음이 녹아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끈으로 엮어진 인연이기에 살아가면서 이렇듯 잔잔한 감동으로 이국 땅에서조차도 내게 자책과 연민으로 다가섰는지 모를 일입니다.

당신이 내게,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안은 사람인지 굳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 오직 당신의 희생적인 사랑과 넓은 도량으로 한 가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을 난 전적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인생사 모두가 참 우스운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욱 그리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인지상정이거늘, 우리들의 평소의 삶도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가요? 늘상 당신을 위해서 뭐든 다 해주겠다고 철저히 다짐을 하지만 닥치면 신기루처럼 사라져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일상인 것을 가슴깊이 반성하면서...

이것이 바로 부부간의 보이지 않은 가슴에 깊숙이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의 따뜻한 감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순간도 무탈하게 여행 잘 다녀오라고 당부하며 집 밖까지 배웅하던 순간의 당신의 모습을 기리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이 아름답게 전개되기를 바라면서 이 순간에도 당신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당신의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한 폭의 그림 같은 저 드넓은 호수를 향해 기도드립니다. 당신과의 만남과 인연이 나에게는 하느님이 내려준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 북유럽 노르웨이 여행지에서 당신을 그리워하며 =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